

오늘의 한국 사회가 지난 20~30년 동안에 치달은 이같은 급격한 변화의 양상이 대체 어떤 것이었던가를 살펴 보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격동에 격동이 이어지는 혼란을 거듭하였다. 해방 후의 최근 40여년간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의 정변과 혁명을 경험하였다. 문자 그대로 변화의 연속이었다.

수 천년 동안 이어져 오던 절대 왕권 하의 전제정치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린 이후, 그 뒤의 한 세기 동안 우리 국민은 모두가 정치 무상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잦은 변화속에서 살아왔다. 일제 35년간의 식민지 통치를 겪었는가 하면,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광복을 맞이한 후에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민주 공화국을 세웠지만, 그 역정 또한 결코 순탄치는 못하였다.

외세에 의한 본의 아닌 남북의 분단과 이로 인한 6.25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는가 하면, 4.19의 거와 5.16혁명, 그리고 제 5공화국의 출범에 이르는 해방 후 40년의 한국사는 한마디로 정치적 격변의 연속으로 점철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변화치고는 너무도 가혹하고 너무도 급격한 정치 상황의 전개였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는 고도 산업사회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유능한 기능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몸에 익힐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전반적인 자질면에 있어서도 현대인으로서의 체질 변화를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관념상으로나마,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 국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

민들의 사고와 생활도 ‘우물 안 개구리 격’이었던 폐쇄성을 벗어나 국제적인 수준으로 그 반경을 넓혔다.

우리 국민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폭과 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음은 물론,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각지에는 다수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함께 살거나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해도 하등 기이할 것이 없는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다. 해방 후 40년간 격동의 연속이었던 정치 상황이 우리 국민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 국가관과 세계관 등을 그토록 급격하게 변화시켜 놓은 것이다.

한편, 경제적 측면의 변화는 더욱 놀라운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후진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세계 도처에서 “저기 한국인들이 몰려온다”고 하면서 경계할 만큼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다.

국민이 먹고 사는 데도 부족할 정도의 전 근대적 농경사회를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지난 2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온갖 형태의 상품을 가공 생산하여, 이를 외국에 내다 파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고도 산업 사회체제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리하여 대다수 국민의 생계를 지탱해 주는 일의 내용과 방법이 크게 달라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소비하는 양곡과 육류마저 그 상당 부분을 외국에 수출한 한국 상품의 대금으로 사들여 오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 연중 행사의 하나였던 이른바 ‘보리고개’와 같은 비참한 절대적 빈곤은 자취를 감추게 된지 오래 되었다. “가난은 나라도 구할 수 없다”는 해묵은 속담이 불과 20년 사이에 전혀 의미없는 말이 되고 만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룩된 지속적인 경제 성장 덕택으로 이제 우리 국민은 대부분의 일용 잡화와 생활 도구들을 국산품으로 사서 쓸 수 있게 되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전자, 기계, 선박, 화공 등 중화학 공업 생산품들을 국내외에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편리해지고 질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다.

특히 통신과 교통의 눈부신 발전은 어느 사이엔가 전국을 하루의 생활권으로 바꾸어 놓았다. 어떤 산간 벽지에 사는 사람들도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즉시 알 수 있게 되었고, 용무가 있으면 불과 몇 시간만에 서울이나 지방의 대도시에 올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량 공급을 근간으로 하는 개방된 경제 체제로 탈바꿈한 한국 경제는 이제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대량 생산된 동질의 생활 용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일상적인 생활용품에 관한 한 도시와 시골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불과 20년 전인 1960년 당시 87달러에 불과했던 우리 국민의 1인당 평균 소득이 1982년 말 현재로는 약 20배에 달하는 1,684달러로 신장한 사실을 두고 외국인들은 입을 모아 “아시아의 우등생 한국인”이라는 탄성을 연발하고 있을 정도이다. 지난 20년간 실로 놀라운 변화가 국민 생활의 양상을 몰라보도록 바꾸어 놓았다.

한국 경제가 이룩한 이처럼 놀라운 발전은 물론 자랑할만한 성과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그 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수반하고 있었음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산업간의 불균형, 해외 의존도의 심화, 과도한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 경직화된 관료주의 체제 등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전통사회 고유의 따뜻한 인간미, 다정한 이웃 관계, 상부 상조하는 공동체 의식 등 결코 변해서는 안 될 미덕들까지도 헌신짝처럼 버리게 했던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 사상의 만연, 살벌한 경쟁의식의 고조, 의리와 인정의 무시,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초래한 후유증들은 우리가 깊

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정치적,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지난 20~30년 사이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제도나 교육 실태, 문화 활동 등 제영역에서 소용돌이친 변화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었다.

사회제도 변혁의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로 이른바 반상의식(班常意識)의 급격한 소멸 현상을 들 수 있다.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불과 30년 전인 6.25 동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이 양반·상민의 구별은 대단한 것이었다. 반상 간에 서로 통혼(通婚)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양반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존칭을 붙이지 않고 함부로 말을 건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으로 인식되었다. 지금도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상제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엇그제까지만 해도 지배적이었던 남성 우위의 사상,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 일반화된 연공 서열, 체질화된 관준 민비(官尊民卑) 사상, 구조화된 학벌 의식과 지역적 차별 의식 등 여러 현상들도 최근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그 결과인지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문성·합리성·능률성만이 중요시되는 산업 사회 특유의 가치척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이제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교육을 받아 능력을 개발하고 자격만 얻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돈과 출세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 방법도 가릴 것 없다는 배금 사상이 어느 사이엔가 팽배하게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가 근자에 이룩한 급격한 사회 변화의 뒤안길에는 한국인들이 신분이나 지위 또는 연령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 고도의 기능적 전문성, 냉철한 산업 사회 특유의 합리주의적 요청을 재빨리 받아들인 뱃가로, 바꾸지 않아도 되었고, 또 바뀌어서는 안 될 우리 나라 전통사회 고유의 가치관마저도 도매금으로 포기하고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질서있는 상하 관계, 따뜻한 인간미, 다정한 이웃 관계, 상부 상조의 정신 등 우리의 전통적인 고유의 미덕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심, 물질보다는 정신,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정서적인 희열을 추구하려는 여유있는 마음가짐, 부분적인 것이나, 지엽적인 것에 구애되기보다는 대의와 본질을 중요시 하려는 정신 등 동양적 전통 사회의 미덕들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는 지난 20~30년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우선 취학을 하나만 보더라도 해방 당시 취학 연령층의 64%(국민학교), 4%(중등학교) 1%(대학)미만이었던 각급 학교 학생들이 1981년에 이르러서는 초등의 100%, 중학교의 94%, 고등학교의 66%, 대학의 18%로 증가하였고, 취학 인구는 도합 1,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남한 인구의 약 32%가 각급 학교의 재학생이라는 이 숫자는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비단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높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지적 수준과 산업사회 적응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이같은 급격한 성장의 뒤안길에는 적지 않은 사회적 병리가 수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를 휩쓴 이같은 변화의 물결은 문화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문화라고 하면,

내용을 시시각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전파하여, 국민 문화의 폭을 거의 무한대로 넓혀 놓고 있다. 젊은이들이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판소리나 광대 놀이들에 대한 관심이 대학생들 사이에 크게 확산되었는가 하면, 경박하고 저속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켄즈와 디스코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인 것이다. 학문과 사상 등 이른바 고급 문화에 접할 기회도 이에 못지 않게 확대되어 이제는 웬만한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면 텔레비전 강의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더구나 각종 종교나 교파들의 전파 속도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급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 못지 않게 서양의 기독교적 신앙이 어느 사이엔가 많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 깊숙히 침투하게 되었으며, 회교등 다른 종교들도 이미 우리 사회에 전파되고 있다.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측면 등이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같은 급격한 변화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개방된 민주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내용도 담고 있지만 그 반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어두운 면도 없지 않다.

그동안 급진전된 경제 구조의 고도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생산성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때문에 한국 사회는 어느덧 서구 여러나라와 같은 삭막한 대도시 중심의 대중 사회로 탈바꿈을 했다. 그 안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메마르고, 이해 타산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되어 가고 있다.

신분이나 계층에 따른 차별이 없어지고 누구나 능력과 자격만 있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개방적 경쟁 사회가 출현했지만, 그 반면에 한국인들은 일체의 정당한 권위도 업신여기고, 당연히 지켜야 할 인간 관계의 질서까지도 무시해 버리는 버릇없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게다가 수 천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오던 효도, 우애, 신의, 상부 상조 등 전통적 가치관의 갑작스런 붕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노부모 모시기를 거부한 자식들의 이야기, 재산 분배를 둘러싼 부자·형제간의 다툼, 자신의 출세만을 위하여 동료 직원이나 상사를 모함하는 직장 풍토,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의 서글픔을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상류층의 호사스런 생활 등은 우리의 신문 지상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사회면 기사거리이다. 이는 요컨대 오늘의 한국 사회가 이룩한 급격한 변화의 어두운 단면들이다.

〈다음호에 계속〉